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한 체육 전공 대학생의 성장

김민주¹ · 신규리²

¹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과정 · ²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Growth of Physical Education Majors through Sports Talent Donation Activities

Kim, Min Ju¹ · Shin, Kyu Lee²

¹⁻²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growth experienced by physical education majors who participated in sports talent donation activi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Sports Science at S University approximately two years after their participation in the YOUNG MOVERS program.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four areas of growth. First, participants achieved professional growth by applying their major knowledge in the field and participating in all stages of program operation. Second, they experienced psychological growth by overcoming the initial burden of instructional activities and accumulating successful experiences. Third, they demonstrated social growth by building social and human capital through interactions with peers and institutional practitioners, and recognizing the social value of sport. Fourth, they achieved career growth by identifying their aptitude through teaching experiences with children and expanding their career pathways through networks. This study provides a qualitative understanding of the professional, psychological, social, and career growth of physical education major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sports talent donation activ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trategies for the systematic operation of university sports talent donation programs.

Key words : sports talent donation, physical education majors, growth, thematic analysis, professional growth, psychological growth, social growth, career growth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일반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주요어 : 스포츠 재능기부, 체육 전공 대학생, 성장, 주제분석, 전문적 성장, 심리적 성장, 사회적 성장, 진로적 성장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hin, Kyu Lee

E-mail: kyuleeshin@seoultech.ac.kr

Received: August, 12, 2026 Revised: September, 6, 2026 Accepted: September, 10, 202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봉사활동은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여가와 달리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형 여가로서의 의의를 가지며(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현대인에게 자아 실현이나 삶의 질과 연관되는 적극적 여가활동으로 볼 수 있다(김현나, 2014). 「2026 대한민국 자원봉사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참여율은 5.6%로 초중고생(17.3%)에 이어 2위이다(행정안전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6).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전문성과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박현숙, 2014).

한편 2026년 4월 전부개정된 「자원봉사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기존의 시간과 노력 중심에서 개인의 재능과 기술을 활용한 활동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개인의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재능기부를 자원봉사의 한 형태로 바라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재능기부를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참여자가 자신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의미와 만족을 경험하는 여가 활동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재능기부는 스스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자유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여가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조수연, 박준홍, 이환, 2011). 특히 스포츠 재능기부는 체육 전공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활동 자체에서 다양한 경험과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가로서 그 경험을 살피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 재능기부란 스포츠를 매개로 한 재능기부 활동이다. 이는 수혜자에게 신체활동이나

레크리에이션,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신체 및 체력을 발달시키고 사회성·경쟁심·사교성 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임항미, 2014). 이 과정에서 기부자 역시 단순한 기술 지도를 넘어 수혜자와 신체적·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체육 전공 대학생이 주축이 되는 스포츠 재능기부는 민간 재단과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실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테샛스포츠재단은 2013년 설립 이후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미션으로, 스포츠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추진한 YOUNG MOVERS 사업은 체육 전공 대학생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재능기부는 소외계층 아동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는 전공지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며 실천적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체육 전공 대학생의 스포츠 재능기부는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을 중시하는 체육 전공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구별되는 의미를 지닌다. 체육 전공 대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된 재능기부 참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고 자신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김숙자, 이보나, 2004). 이는 전공의 이론과 실재를 봉사활동을 통해 경험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학문의 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전문지식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강미혜, 1997).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구체화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참여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영역을 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자격증 취득·봉사활동·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자신만의 스펙을 쌓으며 진로 및 취업 준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권구명, 2018; 김민주, 박지혜, 2020).

이처럼 스포츠 재능기부는 대학생이 전공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경험을 획득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경험을 통한 학습과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한 Dewey(1938)는 학습자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고, 성찰을 통해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모든 경험이 학습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성찰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신념, 가치관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앎과 배움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았다(Giles & Eyler, 1994; 최수정, 2024).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지도, 프로그램 운영, 행정 및 실무 수행, 참여자와의 상호작용 등은 전공 지식과 역량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이를 성찰하는 경험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험학습은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이해하고 기존의 지식과 역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개인의 변화와 발달로 이어지는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이 도덕성, 직업가치관,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등 특정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으로 검증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두어 왔다. 박현숙(2014)은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도덕성과 직업가치관 형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서영환 외(2017)는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연계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전공만족도, 직업가치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이 참여자의 심리적·진로적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사전에 설정된 변인을 중심으로 참여의 효과와 관계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참여자들이 실제 활동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며, 이를 통해 어떠한 성장의 의미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진로와 사회적 역할을 구체화하고 자신의 역량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강의실 중심의 대학교육만으로는 실제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실천적 역량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현장에서 어떠한 경험과 고민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확장하고 성장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대학 교육과 스포츠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역량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동일한 대상트 스포츠재단 YOUNG MOVERS 사업을 배경으로 태권도전공 대학생의 재능기부 참여경험을 분석한 연구(손나래, 김선우, 2026)는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도 경험과 지도 역량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스포츠 재능기부 참여 경험을 주로 지도 활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포츠 재능기부 참여 경험을 지도 경험에 한정하지 않고, 행정적·실무적 경험을 포함한 대학생 개인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와 발달의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장이란 스포츠 재능기부 참여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발달을 의미하며, 경험을 통해 형성된 변화가 이후의 삶과 활동 속에서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로 이어지는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활동 직후가 아닌 프로그램 종료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시간적 거리를 두고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과거 스포츠 재능기부 경험이 참여자들의 성장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과 활동을 통해 형성된 경험과 역량이 이후의 삶과 활동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육 전공 대학생들이 스포츠 재능기부 참여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와 이를 통해 나타나는 성장의 구체적인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Braun & Clarke(2006)의 주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성장의 의미와 양상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스포츠 재능기부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분석된 스포츠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2023년 S대학교 스포츠과학과가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한 YOUNG MOVERS 사업의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크게 일반 프로그램과 운동회로 구분되어 총 20회기 동안 운영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반 프로그램은 S시 N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교 1~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총 18회기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기본 움직임 기술(FMS; Fundamental Movement Skills) 기반의 워업인 'MOVE CHALLENGE'와 킥볼, 플라잉 디스크, 스포츠스테킹, 티볼, 플로어컬링 등의 뉴스포츠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5개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이 함께 참여한 'MOVE SPORT 운동회'가 2회기 진행되었다. 특히 본 프로그램에서 대학생들은 단순한 지도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차시별 수업 계획은 물론, 사업 계획서 작성, 예산 집행, 결과 보고 등 사업 운영 전반의 행정 업무와 현장 관리를 주도적으로 총괄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스포츠 재능기부자로 참여한 S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재학생 13명 중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으로는 첫째, 충분한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 경험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공식 수료 기준인 80% 이상의 참여율을 충족한 자. 둘째,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 과정에서 지도,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 등 다양한 역할을 경험한 자. 셋째, 스포츠 재능기부 참여 경험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진술할 의사가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역할 수행 경험을 고려하여 유의표집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스포츠 재능기부 참여 경험과 그에 따른 성장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경험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학년		나이		재능기부 경험	
		당시	현재	당시	현재	이전	이후
A	남	2	3	20	23	X	X
B	여	2	졸업	20	23	X	O
C	여	2	졸업	20	23	X	O
D	남	2	4	21	24	X	O
E	남	2	3	20	23	X	O
F	여	2	3	20	23	O	O
G	여	2	졸업	20	23	O	O
H	여	2	4	21	24	X	O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스포츠 재능기부 참여 경험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면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 당시 작성된 계획서, 활동일지, 최종 결과보고서 등의 문서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심층 면담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1인당 약 60분 내외의 개별 면담을 1회 실시하였다. 면담 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회상적 진술이 가질 수 있는 주관적 한계를 보완하고 당시 활동의 구체적인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자료를 함께 검토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참여자가 경험을 자연스럽게 회상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에 따른 반구조화된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표 2>와 같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면담 당일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여 현장감과 맥락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였다.

표 2. 면담 질문의 개요와 절차

순서	주요 질문 내용
면담 소개	· 면담에 관한 내용 소개 · 윤리 고려 사항 안내
개인적 특성	· 인적 사항 · 역할(행정, 지도 종목 등)
참여 동기	· 스포츠 재능기부 참여 동기, 참여 경로, 기대사항 등
스포츠 재능기부 경험	문제상황 및 성장 · 문제상황 및 극복 방법 · 가장 보람된 경험 · 가장 힘들었던 경험 및 극복 방법 참여 결과 및 평가 · 스포츠 재능기부의 장점 및 한계 · 참여 전후 변화 및 영향 · 스포츠 재능기부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 기대 일치/불일치 · 참여 만족도 및 재참여 의사
면담 종료	· 면담에 대한 의견 · 추가하고 싶은 말, 생각 등

4. 연구 윤리 및 신뢰성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면담 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익명화 처리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신빙성(credibility), 이전 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 기준을 준수하였다. 분석 결과와 면담 전사본은 참여자에게 공유하여 해석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참여자 확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면담 자료와 문서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자료 간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반성적 성찰을 유지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Braun & Clarke(2006)가 제안한 주제분석 6단계 절차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자들은 전사본과 문서자료를 3회 이상 읽으며 자료와 친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면담 전사본과 문서자료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나 구절, 문서 내용을 추출하여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 셋째, 코드 간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유사한 코드들을 묶어내고, 하위 주제와 상위 주제의 구조를 범주화 및 시각화하며 잠정적인 주제를 탐색하였다. 넷째, 각 주제에 속한 코드들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는지 확인하고, 전체 자료의 맥락과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였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해석적 판단이 자료 해석에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찰하였으

며,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동료 연구자와의 지속적인 토의와 참여자 확인을 병행하였다. 다섯째, 각 주제의 본질과 학술적 의미를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종 주제를 정의하고 명명하였다. 여섯째, 결과 단계에서는 주제별 서술에 가장 대표성이 높은 면담 발췌문을 인용하여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였다.

III. 결과 및 논의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한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경험과 성장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상위 주제와 10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각 주제의 주요 의미는 <표 3>과 같다. 아래에서는 도출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경험한 성장의 의미와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문적 성장

참여자들은 사전 프로그램 지도안 구성 단계에서 대상 아동들의 발달 단계와 운동 특성을 고려하며 대학에서 배운 전공 이론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는 아동들의 반응이나 환경적 변수로 인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며,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내용을 조정하거나 진행 방식을 바꿔야 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단순히 정해진 내용을 전달하는 데서 벗어나, 현장의 맥락을 읽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실무적 감각을 키워갔다. 또한 이들은 지도 영역을 넘어 사업 전반의 행정 업무를 직접 총괄하는 경험을 통해 행정 역량도 함께 향상시켜 나갔다.

1) 전공지식 활용 능력 향상

참여자들은 사전 프로그램 지도안을 구성하며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이를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하며 아동의 발달 단계와 운동 수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전공지식을 현장에 맞게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키워갔다.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팀원들과 함께 프로그램 지도안을 짜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아무래도 대상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섞여 있다 보니, 아이들의 운동능력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계속 고민하며 전공수업 자료를 살펴보다가 FMS를 배웠던 게 생각나서 이걸 프로그램에 적용했던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 플라잉디스크에서 저학년은 디스크를 주고받는 위주로 가르쳤다면, 고학년은 게임에 적용하여 미니 얼티미트 게임을 진행하면서 놀이로 풀어나갔어요.” (참여자 B)

“우리가 스포츠를 공부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아이들의 발달 특성이 좀 더 구체화 된 것 같아요. 유아동체육론 수업에서 학습 발달 단계, 운동 발달 단계 등에 대해 배웠던 것을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서, ‘이 아이들은 이 단계쯤이구나’ ‘이 단계 아이들한테는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야겠구나’까지 생각이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F)

참여자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전공지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론으로 학습했던 아동의 발달 단계와 운동 수준을 실제 아동의 행동과 반응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연령과 운동 수준이 다양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동일한 활동이라도 대상에 따라 내용을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깨

표 3.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성장 주제

상위 주제	하위 주제	주요 의미
전문적 성장	전공지식 활용 능력 향상	교실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메우고,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
	유연한 현장 대처력 향상	사전에 계획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아동의 반응과 현장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내용을 조정하고 진행 방식을 바꾸는 능력이 향상됨
	행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기획 및 행정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경험을 통해 조직관리 및 행정 실무 역량이 강화됨
심리적 성장	심리적 안정	처음에는 아동 지도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컸으나, 반복적인 활동 경험을 통해 점차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함
	자기효능감 강화	아동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이 형성됨
사회적 성장	사회·인적 자본 축적	동료 대학생, 및 외부 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타인과의 협력 경험을 축적함
	사회적 가치 인식	스포츠가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사회공헌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됨
	재능기부 범위 확장	기존에는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연령, 배경, 환경의 아동들과 활동하면서 경험의 범위가 확장되고, 새로운 대상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도 경험을 축적함
진로적 성장	진로-적성 구체화	아동을 직접 지도하며 자신의 지도 역량과 적성을 검증하는 경험을 통해, 체육 지도자로서의 적합성과 진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명확히 함
	전공 커리어 연계	지역아동센터·복지관 등 외부 기관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사 활동, 지역 체육행사 운영 등 전공과 연계된 실질적인 커리어를 주도적으로 확장함

달으며 기존의 전공지식을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키워갔다. 예를 들어 같은 플라잉디스크 활동이라도 저학년에게는 던지기과 받기 중심의 FMS 활동으로, 고학년에게는 이를 게임 상황에 적용한 미니 얼티미트 게임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연계 봉사활동이 대학생에게 전공지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전공교육과 현장 경험을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선행연구(김숙자, 이보나, 2004)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전공지식 활용 능력 향상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사용한 결과라기보다, 다양한 아동의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식을 새롭게 적용하고 재구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스포츠 재능기부가 체육 전공 대학생에게 전공지식을 실제 맥락 속에서 활용하고, 이를 실천적 지식으로 확장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2) 유연한 현장 대처력 향상

체육 전공 대학생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전에 계획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아동들의 컨디션이나 반응, 주변 상황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미리 준비한 지도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활동 내용과 진행 방식을 조정해야 했다.

“애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그때가 처음이 다보니, 확실히 내 마음대로 지도 되지 않고, 애들을 관리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들을 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활동하면서, 감을 잡고,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C)

“티볼 같은 경우는 경기를 하기에는 아이들의 운동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식 경기를 하기보다는 공을 쳐서 정확한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보내는지에 따라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좀 변형시켜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텐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공간이 좁지는 않을지, 이 정도 나이의 아이들이면 발달 단계가 어느 정도여서 아이들이 얼마나 잘 뛸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말한 거를 얼마나 잘 이해할지 등 아이들의 능력치를 잘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이 정도 아이들이면, 이 공간에서, 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여자 F)

참여자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계획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아동의 특성과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활동을 조정하는 능력을 형성해 나갔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처럼 연령과 운동 수준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에서는 프로그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하였다. 또한 반복적인 현장 경험을 통해 상황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판단하는 실무 감각을 형성해 나갔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특성과 현장 맥락을 고려한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구봉진, 윤찬수, 2020)와 맥을 같이한다. 즉, 참여자들은 현장의 변수를 직접 경험하면서 아동의 특성과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점차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3) 행정 역량 강화

참여자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과정에서 지도

역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과 행정 운영까지 직접 수행하며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경험을 하였다. 참여 초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예산 집행 등 익숙하지 않은 행정 업무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으나, 반복적으로 실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절차와 흐름을 이해하고 점차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라서 막막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사업계획안·수정신청서·결과보고서 작성부터 예산 관리까지 다 가능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의 수업뿐만 아니라, 사업 하나를 진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참여자 B)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서, 운영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든 것을 다 직접 해볼 수 있었다는 게 큰 장점이지요.” (참여자 D)

“이 재능기부를 통해 예산 집행부터, 기획, 지도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야만 제가 얻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한 활동으로 진짜 다양하게 경험했다고 생각해서.” (참여자 F)

“이 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기획해 보고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해 보는 것까지. 내가 직접 기획 및 운영을 해봤다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다른 대외활동을 할 때도 일하는 순서라던가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스스로 정리되면서 나만의 좀 가이드라인이 생긴 느낌입니다.” (참여자 A)

참여자들은 하나의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수행자가 아닌 사업의 주체로서 업무의 순서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스스로 확인하는 행정 역량을 함양해 나갔다. 이는 기존 재능기부 관련 선행 연구(박창우, 이용재, 2014; 이정은, 2019)들이 지도 역량이나 전공 역량 강화에 주

목했던 것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다.

(재)테샛스포츠재단의 YOUNG MOVERS 사업은 참여자들이 단순히 수업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행정 서류 작성, 결과보고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참여자들이 지도와 행정 업무를 함께 경험하며, 프로그램을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무적 역량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심리적 성장

참여자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 초기에는 아동을 지도해야 한다는 부담과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을 경험하였으나, 반복적인 현장 경험을 통해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차 안정감과 자신감을 형성하였다. 특히 활동 과정에서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수업 운영에 익숙해지면서 지도 상황에 대한 심리적 여유가 생겼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 다른 교육 현장에서도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 심리적 안정

체육 전공 대학생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 초기에는 지도 경험의 부족과 수업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수업 운영에 대한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현장경험이 축적되면서 수업 진행이 익숙해지고, 아동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초반에는 스스로 이 분야에 대한 경험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럼에도 내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항상 긴장 상태로 수업을 했었는데, 후반부쯤에는 긴장도 많이 풀리고 수업 진행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초반에는 걱정만 많았다면, ‘이제는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더 커지면서 이 시간이 즐겁게 느껴졌었습니다.”

(참여자 B)

“이 활동 이후 초등학교 강사를 나갈 때 되게 부담감이 줄었어요. 초등학교에서 혼자 한 반을 이끌어 나간다는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는데, 데상트에서 혼자 메인으로 수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능숙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갑작스러운 인원 변동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딱히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참여자 G)

참여자들은 활동 초기에 자신의 지도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 또한 수업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긴장된 상태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심리적 부담은 체육 지도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수업 운영,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지도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미숙함과 자신감 부족으로 수업 운영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쉽다는 선행연구(송주승, 곽미정, 황민선, 2017)와도 같은 맥락을 보인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아동과의 상호작용, 수업 진행,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수업 운영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수업에 대한 긴장과 불안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 과정에서 단독으로 수업을 운영한 경험은 새로운 교육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자기효능감 강화

체육 전공 대학생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반복적인 지도 경험을 쌓으면서 다수의 아이들을 단독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였으며, 지도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스스로 체감하였다. 또한 활동 이후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속적인 활동을 요청받은 경험은 자신의 노력과 지도 역량을 외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성취감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향후 선수 트레이너 등 진로 영역에서도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확장되었다.

“제가 데상트에서 스포츠 재능기부를 했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그 사이에 경험을 통해 쌓은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 경험으로 제가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고, 수업을 더 잘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참여자 F)

“데상트를 할 때, 정말 많은 아이들과 부딪히며 경험을 쌓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 혼자서도 다수의 아이들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학교에 수업을 나가면 저 혼자서도 수업을 온전히 진행할 수 있어요.” (참여자 G)

“데상트 활동 이후에 같은 센터에서 스포츠 재능기부의 형태로든, 강사의 형태로든 계속 활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잘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기분이라 뿌듯했어요.” (참여자 B)

“지금 선수 트레이너를 진로로 잡았는데, AT가 대상은 다르지만 누군가를 교육하고 지도한다는 부분에서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

래서 이 활동을 통해 지도자를 미리 경험해 본 것이 나중에 AT가 되어 선수들을 봤을 때 재활이나 트레이닝을 더 잘 해낼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된 것 같아요.” (참여자 D)

참여자들은 반복적인 지도 경험을 통해 자신이 나눌 수 있는 전공 역량이 한층 풍성해졌음을 체감하였으며, 보조자 없이도 다수의 아동을 지도하고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믿음을 형성하였다. 특히 동일 기관의 연속적인 활동 요청과 같은 외부의 긍정적 피드백은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은 향후 자신의 진로 영역에서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에서의 성공 경험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지도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자, 예측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가에 관한 판단이다(Bandura, 1977). 스포츠 재능기부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반복적인 성공 경험을 축적하며 자신의 지도 역량을 신뢰하고, 대외적 인정을 통해 성취감을 내재화하며, 나아가 미래의 직무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모습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강화된다는 Bandura(1997)의 이론적 설명과도 맥을 같이 한다.

3. 사회적 성장

참여자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동료 대학생과 외부 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주체와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며 새로운 활동의 기회와 자원을 확보하였

다. 또한 아동들의 변화와 성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스포츠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대상에게 스포츠 재능기부를 이어가는 모습도 나타났다.

1) 사회·인적 자본 축적

체육 전공 대학생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동료 대학생과 외부 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활동 이후에도 지속하였다.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전공 동기들은 단순한 교우 관계를 넘어 진로와 관심사를 공유하며,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함께 이어가는 동료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외부 기관의 담당자들과는 행정 및 실무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이후 타 활동에서도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 활동 참여자 대부분이 22학번 동기들인데 같은 전공을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진짜 하나의 팀이 된 느낌이에요. 지금도 데상트 때 좋았다 힘들었다 얘기하면서도, 진로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물어볼 친구들이 되었어요.” (참여자 A)

“이걸 하면서 같은 관심사, 고민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이후에 비슷한 활동을 같이 했는데 약간 동료를 만든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기관들과 이후에도 몇몇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참여자 B)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선생님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과 행정적인 일을 해본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후에 다른 활동을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참여자 H)

참여자들은 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를 일회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활동과 협력의 기회를 얻었다. 이는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다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Bourdieu, 1986)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참여자들이 동료 대학생 및 외부 기관 담당자와의 관계를 통해 이후 활동의 기회와 협력 기반을 확보한 경험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넘어 사회적 자본을 실제 자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참여자들은 활동 과정에서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지도, 행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향후 활용 가능한 실무적 지식과 능력을 축적하였다. 인적 자본은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개인에게 축적되는 생산자원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의미하며(Schultz, 1961), 참여자들이 활동 과정에서 습득한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 경험은 개인의 역량으로 축적되었다는 점에서 인적 자본의 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적 가치 인식

체육 전공 대학생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목격하며 스포츠가 개인의 신체활동을 넘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나아가 스포츠의 사회복지 및 사회공헌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전공 역량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 활동은 제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만든 활동이에요. 스포츠 재능기부를 통해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보면서 스포츠의 필요성을 더더욱 느꼈습니다.” (참여자 B)

“우리 프로그램의 대상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이다 보니까, 단순 체육 지도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 사회공헌의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참여자 H)

“아이들과 함께 활동해 보니, 내가 앞으로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참여자 A)

참여자들은 아동들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체감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대상의 재능기부를 통해 개인적인 보람을 느꼈으며, 스포츠의 사회복지 및 사회공헌적 가치를 내재화하였다. 이는 재능기부 참여 경험이 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강정애 등, 2024)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재능기부를 통해 자신의 전공지식과 기술이 타인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한 경험이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재능기부 범위 확장

체육 전공 대학생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도 경험을 축적하고 그에 따른 보람을 느끼면서 활동 종료 후에도 재능기부를 지속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동일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스포츠 재능기부에 참여하였으며, 아동 대상 활동에서 나아가 노인 등 다른 연령층으로 활동 대상을 확대하였다.

“전 재참여하고 싶어요. 이 활동으로 제가 얻은 것도 많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해보는 경험도 쌓을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이후에 같은 기관으로 스포

츠 재능기부를 몇 차례 더 가기도 했었어요.” (참여자 C)

“이 활동으로 제가 성장한 만큼 아이들한테 질적으로 더 좋은 재능기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참여자 F)

“대상트로 아동 스포츠 재능기부를 해봤으니, 다음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방학 중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스포츠 재능기부를 또 했었어요. 대상트 때의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노인 대상으로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H)

참여자들은 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보람과 축적된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스포츠 재능기부에 다시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기존 활동에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과 자신감을 토대로 새로운 대상에게도 자신의 역량을 활용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아동에서 노인으로 활동 대상을 확대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재능기부 경험이 일회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고,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상과 활동으로 확장되는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진로적 성장

참여자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전공지식과 경험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전공과 진로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자신의 역량이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역할과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1) 진로-적성 구체화

체육 전공 대학생들은 아동을 직접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도 역량과 적성을 실제로 확인하고, 아동 체육에 대한 흥미와 보람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기존 진로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거나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지도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아동 체육을 해보면서 지도 분야와 대상이 적성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참여자 E)

“초반에는 단편적으로 전공을 살리는 진로로 지도만 생각했었는데, 이걸 통해 내가 지도자에 적합한지, 그중에서도 아동 체육에 적합한지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됐어요.” (참여자 H)

“이 활동을 계기로 ‘나중에 내가 지도자를 직업으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이렇게 강사를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 제가 지도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때예요. 타 연령대에 비해 유아동은 발달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도할 때 더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유아동 쪽으로 가고 싶어요.” (참여자 F)

“제가 만약에 이 활동을 안 했으면 지도 쪽은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대학 들어올 때도 지도나 유아동 체육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활동을 하다 보니 초등학교 수업에 가게 되었고, 계속 아이들 지도를 하게 됐어요. 처음엔 관심이 별로 없었다가, 해보면서 생각이 달라진 거죠.”

(참여자 G)

참여자들은 실제 아동을 지도하며 자신의 적성과 지도 역량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기존의 진로 인식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도에 관심이 있던 참여자는 자신의 적합성을 확인한 반면, 관심이 없던 참여자는 현장 경험을 통해 지도 분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또한 아동의 성장과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지도에 대한 보람과 흥미를 발견하고, 유아동 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이 자원봉사를 넘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직접 탐색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이 지도자의 역할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여 체육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선행연구(김현우, 전현수, 2022)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지도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 적합성을 탐색하고 진로의 방향성과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명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2) 전공 커리어 연계

체육 전공 대학생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하며 다양한 기관 담당자들과 신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사 활동과 지역 체육행사 운영 등 전공과 연계된 경험을 이어갈 수 있었다. 특히 초기에는 기관의 추천이나 소개를 통해 활동 기회를 얻었으나, 현장 경험이 축적된 이후에는 직접 강사 공고에 지원하는 등 전공 커리어를 주도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현장에서 맺은 인연들이 제 가장 큰 자산이 됐어요. 같은 지역에서 꾸준히 스포츠

재능기부를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좋게 봐 주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을 통해서 타 기관 강사도 가고, 관내 아동돌봄기관 연합 운동회 진행도 하면서 지도자로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참여자 B)

“23년 활동이 끝난 이후, 24년에도 같은 지역아동센터로 스포츠 재능기부를 나갔고, 지금은 거기서 줄넘기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센터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과 라포를 쌓아왔던 게, 지금 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C)

“처음에는 복지관 추천으로 다른 기관 강사 자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현장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강사 공고 보고 직접 지원해서 강사 활동을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참여자 G)

참여자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과정에서 형성한 관계와 현장 경험을 실제 전공 커리어 기회로 연결하였다. 특히 일부 참여자는 기관의 추천을 통해 강사 활동을 시작한 이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강사 활동에 지원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이는 스포츠 재능기부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 현장 경험이 전공 관련 활동의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기반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재능기부가 단순한 봉사 경험에 그치지 않고 전공 지식과 현장 경험을 실제 직업적 기회로 연결하는 경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기관의 추천과 네트워크를 통한 초기 진입에서 스스로 활동 기회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단계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전공 커리어의 주도성이 확대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체육 전공 대학생들이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며 경험한 성장 의미와 양상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심층 면담 자료를 Braun & Clarke(2006)의 주제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상위 주제와 10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체육 전공 대학생의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 참여 경험을 통한 성장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전공지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면서 전문적 역량을 확장하였다. 특히 지도 경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행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전공지식을 실천적 역량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둘째, 참여자들은 반복적인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초기의 지도에 대한 부담과 긴장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지도 상황에서의 성공 경험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면서 자기효능감을 형성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은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동료 대학생 및 외부 기관 담당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인적 자본을 축적하였다. 또한 아동들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활동 이후 다른 대상과 현장으로 재능기부를 지속하고 확장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넷째, 참여자들은 지도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고, 현장에서 형성한 경험과 관계를 전공 커리어로 연결하였다. 나아가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스스로 새로운 활동 기회를 탐색하고 선택하면서, 진로에 대한 주도성을 확대해 나갔다.

V. 제언

본 연구는 체육 전공 대학생의 스포츠 재능기부 경험을 사회공헌형 여가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들의 다차원적 성장과 여가학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활동 수료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긍정적 성장을 위주로 결과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실패 등 부정적 경험이나 한계점까지 포괄하여 심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이 경험하는 여가의 다층적 맥락을 완전히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학생에게 스포츠 재능기부는 사회적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전공 역량 개발 및 진로 탐색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고차원적 여가 행위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스포츠 재능기부가 여가로서 대학생의 진로 형성 및 삶의 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장된 시각에서 탐구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전공 대학생의 스포츠 재능기부의 지속 가능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투입 전 사전 역량 강화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초기 기획, 행정, 아동 지도 및 안전관리 등 경험 부족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 관련 실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여가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부터 행정, 지도를 아우르는 통합형 운영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사업의 전 과정을 경험하며 차별화된 행정 역량과 관계적 성장을 이루었다. 현장 지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학생들을 실무 능력을 갖춘 융합형 스포츠 인재이자, 주체적인 여가 참여자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대학 중심의 ‘교육-재능기부-강사’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재능기부 이후 일부 대학생들이 마을강사와 협력강사로 활동을 이어가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대학이 지역사회 기관 및 혁신교육지구와 협력하여 역량 강화교육, 재능기부, 마을강사 및 협력강사 활동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면, 일회성 봉사를 넘어 사회공헌형 여가 경험을 확장하고 진로 개발과 지역 인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혜(1997). 사회봉사와 전공학문을 연계한 봉사학습에 관한 연구: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덕성여대논문집*, 28, 441-465.
- 강정애, 김은영, 이수민(2024).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체육학과 학생의 재능기부 경험 탐색: Kolb의 경험학습이론에 기반하여. *대한체육학회지*, 22(2), 255-271.
- 구봉진, 윤찬수(2020). 예비초등교사의 체육활동 교육기부 참여 경험을 통한 교육적 신념과 교사역량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1), 17-34.
- 권구명(2018). 노인체육전공 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노인인식이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7), 769-787.
- 김민주, 박지혜(2020). 체육전공학생의 장애인체육 봉사 경험을 통한 장애인식과 진로 계획 변화 과정 탐색. *평생교육·HRD연구*, 16(4), 1-27.
- 김숙자, 이보나(2004). 대학생 체육 자원봉사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1, 191-202.
- 김현나(2014). 재능기부 자원봉사의 여가적 의미와 가치 탐색.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3), 54-65.
- 김현우, 전현수(2022). 대학 운동선수들의 재능기부 적용 사례와 의미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7(3), 15-29.
- 박창우, 이용재(2014). 대학의 재능기부동아리 활동과 지역아동센터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아동보호.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3), 55-77.
- 박현숙(2014). *대학생의 선택적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도덕성과 직업가치관 형성*.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서영환, 유한나, 이강찬, 신진화(2017).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연계 봉사활동 참여 동기에 따른 전공 만족도, 직업가치관 형성,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분석.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5(2), 211-220.
- 손나래, 김선우(2026). 태권도전공 대학생의 아동양육시설 재능기부 참여경험에 대한 의미 분석: 대상트스포츠재단 YOUNG MOVERS 사업 중심으로. *코칭능력개발지*, 28(4), 106-115.
- 송주승, 광미정, 황민선(2017). 예비유아교사가 현장실습을 통해 지각한 교육신념과 갈등의 변화. *한국자치행정학보*, 31(1), 197-223.
- 이정은(2019). 특수교육전공 대학생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봉사학습 경험 분석. *특수교육*, 18(4), 191-219.
- 임향미(2014). *스포츠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중요요인 및 우선순위 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조수연, 박준홍, 이환(2011).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여가로서의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따른 연구. *스포츠문화과학연구지*, 18, 23-32.
- 최수정. (2024). 국내 대학에서의 봉사학습 연구 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3), 395-413.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여가 그리고 정책-여가를 통해 미래사회를 바라본다*. 대왕사.

- 행정안전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6). 2026 대한민국 자원봉사 현황. 행정안전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서울.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and control. *New York : W.H. Freeman*.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 Braun, V., &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Dewey, J.(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 Giles, D. E. and Eyler, J. (1994). The theoretical roots of service-learning in John Dewey: Toward a theory of service-learning.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Learning*, 1(1), 77-85.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Schultz, T. 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role of education and of researc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1), 1-17.